



즉시 배포용: 2022년 4월 11일

KATHY HOCHUL 주지사

KATHY HOCHUL 주지사, BIDEN 대통령의 유령 총기 엄중단속 명령에 지지 성명 발표

"오늘 Biden 대통령과 미법무부가 유령 총기 엄중단속을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총기 제작 키트 "바이, 빌드, 쏘(buy, build, shoot)"에 대해서도 다른 총기류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연방 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온 이러한 틈새를 막기 위한 Biden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지속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유령 총기, 특히 단 30분이면 조립할 수 있고 100달러 미만이면 부품을 구할 수 있는 총기 입수 절차를 회피할 수 없어야 합니다. 바로 지난 주에, 사우스 브롱크스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세 명의 십대가 총에 맞아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령 총기였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체에서 치명적인 총기 사건에 사용되는 유령 총기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10월에, 저는 유령 총기 [매매를 법률로 금지하고](#) 총기 제작자들이 조립한 총기류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불법 총기에 대한 국가 주도의 주간 태스크포스(Interstate Task Force)를 구성하여 10개 주, 연방 기관 및 지방 법집행 기관을 소집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유령 총기를 비롯하여 매달 수백 점의 총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기 폭력을 공공 보건과 안전 위기로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유행병처럼 발생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2023년도 예산](#)에서 역대급으로 2억 2,700만 달러를 총당합니다. 지방, 주, 연방 차원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위험한 무기의 유통과 소유를 엄중단속하고 거리에서 총기를 몰아내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